특별선교주일

미원주민선교주일

열린 가슴, 열린 마음, 열린 문,
한인연합감리교회®

특별선교주일

미원주민선교주일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 띠우셨나이다"

— 시편 30:11

아래의 예들은 우리의 미원주민선교주일 특별 헌금이 미원주민 사역들을 위해 쓰이면서 어떻게 과거의 해악을 치유하고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변화를 만드는지 보여줍니다.

> **"전체 교회가 미원주민들이 직면하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그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거의 만행에 대한 인식과 대화가 있어야 합니다."**
>
> — **다나 페우 목사**, 오클라호마인디언선교연회 연대사역 총무

> **"역사의 이 부분은 실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투명 인간처럼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볼 수 있을까요?"**
>
> — **채드 존슨 목사**, 북 텍사스 잭스보로제일연합감리교회 담임

> **미원주민들은 180년 이상 연합감리교회와 역사를 공유해 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땅에서 쫓겨나고, 인종차별과 싸우고, 실업과 경제적 어려움과 싸우면서도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의역).**
>
> — **데이비드 윌슨 목사**, 오클라호마인디언선교연회 총무

> **각 부족은 그들만의 창조 이야기를 지니고 있으며 모두 고유의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식민주의는 창조에 대한 책임보다 권리를 강조한 유럽계 백인들의 창세기 해석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의역).**
>
> — **헤더 어톤 박사**, 퍼스트아메리칸스 박물관 수석 학예사

관대한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UMC.org/SSGive

특별선교주일

미원주민선교주일

오늘은 미원주민선교주일이며, 교단에 속한 모든 교회가 협력하여 미원주민들을 위한 연합감리교회의 사역을 후원하는 특별선교헌금을 드립니다.

미원주민선교주일 헌금은, 연합감리교회가 교단적으로 행하는 6개의 특별선교헌금의 하나로, 원주민 목회자, 교회, 신학생을 준비시키고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어, 그들만이 할 수 있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섬기는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의 절반은 우리 연회와 지역의 사역에 사용되며, 나머지 절반은 전국 단위의 연합감리교회 미원주민 사역을 후원합니다.

연합감리교회, 세상, 우리 지역사회는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함께 연합하여 과거의 해악을 치유하고,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미원주민 사역을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더 변화를 만드는 치유와 소망을 확장하도록 연합감리교인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물질과 후원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창조 세계와 협력하며 고통당하는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의 임재를 더 분명히 드러냅니다.

연합감리교회 특별선교주일 예물은 변화를 만드는 지역사회에 투자되어 지도자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평화와 정의의 사역을 후원합니다. 공동의 사역을 위해 우리의 자원을 집중하는 일은 우리가 신실한 결단으로 은혜로 충만한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도록 합니다.

미원주민주일 특별선교헌금을 통해 배상과 기쁨의 사역에 동참하세요.

HOW TO GIVE:

체크 메모난에 “미원주민선교주일”을 적어 소속 교회에 헌금하세요.

웹사이트 UMC.org/SSGive 에서 온라인으로 후원하시거나 월 정기후원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열린 가슴, 열린 마음, 열린 문.
한인연합감리교회®